

탈북여성 관련 양적 연구동향 분석

An Analysis of Trends in Quantitative Studies on Female North Korean Refugees

이순민*, 심우찬**

세종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Soon Min Lee(smlee2@sjcu.ac.kr)*, Woochan Shim(shimw@dju.kr)**

요약

본 연구는 탈북여성 관련 양적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탈북여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학술정보원(KISS), 누리미디어(DBpia)에서 ‘탈북여성’, ‘새터민 여성’, ‘북한이탈 여성’의 키워드로 검색하여 나온 양적실증연구논문 최종 36편을 동향분석을 했다. 동향분석은 연구의 출처 및 연도별, 연구방법별, 그리고 연구대상별 일반적 특성의 분석과 더불어 연구의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여성 관련 논문의 출처를 분석한 결과, 탈북여성 관련 연구가 가장 많이 게재된 학술지는 “한국심리학회지: 여성”이었다. 둘째, 연도별 연구동향을 살펴본 결과,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1편에 불과하였던 탈북여성 연구는 그 이후 2010년(8편, 22.2%)부터 크게 증가하였다. 셋째, 연구방법별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설문 조사(24편, 66.67%), 2차자료분석(7편, 19.44%), 개입 평가연구(3편, 8.33%), 구조화된 면접 조사(2편, 5.56%)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주된 양적 자료분석 방법별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통계적 분석방법(34편, 94.44%)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다섯째, 내용 분석을 통해, 탈북여성 관련 연구에서 중점이 되는 특정 주제를 범주화한 결과, 가장 많이 다루어진 주제는 탈북여성의 정신건강 및 심리(17편, 47.22%), 탈북여성의 사회 적응(5편, 13.89%), 탈북여성의 취업 및 진로(4편, 11.11%), 탈북여성의 건강(4편, 11.11%), 탈북여성의 성(3편, 8.33%), 탈북여성의 실태(3편, 8.33%)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탈북여성 관련 연구과제 및 방향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탈북여성 난민 | 탈북여성 | 동향연구 | 내용분석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trend of quantitative research regarding female North Korean refugees in order to broaden our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women and provide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In August 2017, the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and Nuri Media (DBpia) databases were used to search academic peer reviewed journal articles with the following keywords: “North Korean female”, “North Korean female refugees” and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Trend analysis included a content analysis of the study finding section, along with analysis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ch as published journals, year of publication, study methodologies, and subject of the study.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was the journal with the most studies on female North Korean refugees. Second, as a result of looking at research trends by year, there was only one study on North Korean female refugees published between 2000 and 2004, and the number started to increase in 2010(8 articles, 22.22%). Thir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research trends by research methods, survey method was most frequently used. Fourth, statistical analysis was most often utilized analysis methodology(34 studies, 94.44%). Fifth, in the content analysis, North Korean female refugees’ mental health and emotional issues(17 studies, 47.22%) were the most often the focus of studies being analyzed, followed by social adjustment issues((5 studies, 13.89%). Based on these results, direc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suggested.

■ keyword : | Female North Korean Refugees | North Korean Defectors | Research Trend | Content Analysis |

* 본 연구는 2017학년도 대전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접수일자 : 2018년 06월 14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7월 02일

수정일자 : 2018년 06월 27일

교신저자 : 심우찬, e-mail : shimw@dju.kr

I. 서론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1]에 따르면, 2017년 9월말까지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총 31,093명이며, 그 중에서 탈북여성의 수는 22,135명으로 71%에 해당한다. 1998년 이전에는 탈북여성의 비율이 12%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 55%를 차지하고 그 이후 점점 증가하면서, 성별에 따른 적응 수준과 정착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

탈북여성은 입국과정 중 인신매매나 매춘과 같은 인권침해[3]로 인해 입국 후 심리적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기도 하고[4][5], 북에 두고 온 가족이나 친지에 대한 죄책감 및 그리움으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며[6], 정착과정에서의 경제적 차별 문제[7], 정착 후 지속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8] 등을 경험한다. 이 외에도, 탈북여성은 탈북에서부터 정착까지의 과정에서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차별이나 출산 및 육아[9] 등으로 인한 이중 고충을 경험한다. 특히 중국이나 제3국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 복잡한 형태의 국제적으로 분리된 가족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한국에 정착한 후 한국남성과 결혼하는 경우에도 가족 해체 및 재결합을 경험하고, 다양한 가족관계로 인한 현·전남편과의 갈등[10], 배우자에 의한 폭력피해[11],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와의 문화적 단절 및 경직된 의사소통으로 인한 갈등[12][13], 부모로서의 역할수행의 어려움[14],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3].

이중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여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탈북여성의 입국이 급증하는 2000년에서부터 시작되어, 사회복지학, 여성학, 심리학, 정책학, 보건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탈북여성의 정신건강, 사회적응, 취업, 신체적 건강, 실태, 성 등에 관하여 세분화되어 다뤄지고 있다. 탈북여성에 대한 연구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내용 및 학문영역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여성 연구의 동향을 살펴본 연구는 박정란, 강동원[2]이 유일하다. 박정란, 강동원[2]의 연구는 탈북여성 관련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았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으나, 선행연구들의 내용상 주요 특징들을

정리하는 것에 그쳤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 주제에 따른 연구 동향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준인 학술지 및 연도별, 일반적인 특성, 방법별로 탈북여성에 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탈북여성 관련 연구들은 탈북여성의 경험이나 관점에 집중하는 질적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하여, 탈북여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일반화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정책에 반영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연구 중에서도 양적연구에 제한하여 연구동향을 살펴보기로 하였는데, 이는 주요 논문검색 database인 Kiss와 DBpia에서 검색된 탈북여성 관련 연구들 중에서 질적 연구(51편)보다 현저히 적은 양적 연구(36편)의 경향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향후 탈북여성 관련 양적 연구 활동 및 성과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탈북여성들의 경험과 관점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질적 연구를 제외하고, 탈북여성들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가설을 검증하고 객관적이고 일반화된 연구결과를 제시한 양적 연구들만을 통합하여 분석함으로써, 탈북여성 관련 사회복지 실천현장 및 양적 연구에 활용 가능하고 의미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탈북여성에 관한 국내 양적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특성, 방법별, 연구 주제별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향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탈북여성 관련 양적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와 발전적인 연구방법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여성 관련 양적연구의 학술지 및 연도별 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탈북여성 관련 양적연구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동향은 어떠한가?

셋째, 탈북여성 관련 양적연구의 방법 및 자료분석 방법별 연구동향은 어떠한가?

넷째, 탈북여성 관련 양적연구의 연구 주제에 따른 연구동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동향 분석준거

본 연구의 연구 분석틀은 사회복지 및 탈북여성 관련 분야의 연구동향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설정하였다. 선행연구[3][15][16]를 참조하여, 출처[15] 및 연도별[3][15], 연구방법[3][15][16]과 자료분석 방법[16], 그리고 연구의 내용 분석[3][16]으로 구성하였다. 출처 및 연도별 연구동향은 2000년을 기점으로 2017년 8월까지 분석하였으며, 출처는 분석대상 연구물이 발표된 학회지별 동향을 살펴보았다. 출처 및 연도별 연구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어느 학술지, 어느 연도에 탈북여성 관련 양적 연구들이 주로 게재 되었는지 분포 경향을 알 수 있다. 연구방법별 연구동향은 선행연구[15-18]를 바탕으로 하여 양적연구방법을 설문 조사, 구조화된 면접 조사, 실험연구, 문헌연구(2차자료분석), 양적·질적 혼합연구로 분류하였으며, 자료분석 방법별 연구동향은 문헌고찰, 내용분석, 사례분석, 통계적 분석, 그리고 문헌고찰과 통계적 분석의 통합방식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방법과 자료분석 방법별 연구동향을 분석함으로써, 탈북여성 관련 양적 연구들이 주로 활용하는 양적 연구방법 및 자료분석 방법, 그리고 더 활용될 필요가 있는 연구방법 및 자료분석 방법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도출된 범주화된 주제 유형을 통해 탈북여성 관련 양적 연구들이 집중하고 있는 관심 주제가 무엇인지 추론할 수 있다.

2.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탈북여성 관련 양적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한 논문의 대상은 탈북여성 관련 학술지 게재된 실증적 양적 논문들이다.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수행된 실증적인 연구들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므로, 비실증적인 문헌고찰, 담론, 법적 및 정치적 논평이나 분석은 제외하였다. 학회발표 논문과 학술지 게재된 논문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선정하였고, 동료평가(peer-reviewed)된 연구가 아닌 공공기관 보고서인 경우에는 제외하였

다. 또한, 질적 연구방법을 쓴 연구는 제외하고 양적 연구만을 선정하였다.

대상 논문들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학술정보원(KISS), 누리미디어(DBpia)에서 ‘탈북여성’, ‘새터민 여성’, ‘북한이탈 여성’의 키워드 검색을 하여 연구 논문(371편) 목록을 확보하였다. 그 중에서, 중복 검색된 논문, 공공기관 보고서, 비실증 문헌고찰, 담론, 법적 및 정치적 논평이나 분석, 질적 연구 등을 제외하고 실증적인 양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탈북여성 관련 논문 36편을 최종분석대상 논문으로 선별하였다. 분석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자세하게 검토한 후 본 연구의 분석틀에 맞게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내용 분석은 분석논문들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탈북여성 관련 주제들을 유사한 것들끼리 묶고 하위범주를 설정한 다음, 범주들을 명명하였다. 범주화는 연구자들 간의 하위범주 점검과 재조정 과정을 거쳤으며, 그 결과를 반복적으로 공유하고 재조정함으로써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분석

탈북여성 관련 출처 및 연도별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 총 36편 논문 중에서 가장 많이 게재된 학술지는 한국심리학회지: 여성으로 11편(30.5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상담학연구, 한국가족복지학, 한국모자보건학회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한국웰니스학회지에 각각 2편(5.56%)이 게재되었으며, 나머지 학술지들은 각각 1편(2.78%)이 게재되었다[표 참조]. 위와 같은 결과는 탈북여성 관련 연구들이 정신건강 및 심리에 관련된 논문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여성 관련 심리학회지인 한국심리학회지: 여성에 탈북여성 관련 논문이 집중되어 게재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탈북여성에 대한 연구는 보건, 사회복지, 상담심리, 의학, 정책 등 다양한 학문적 연구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연구동향을 살펴본 결과,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1편에 불과하였으나,

그 이후 탈북여성 관련 연구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8편(22.22%)이 나왔으며, 2013년에는 6편(16.67%)이 게재되었다.

표 1. 탈북여성 관련 분석대상 논문의 출처 및 연도별 분포와 추이

학술 지	연도별 분포와 추이 (2000-2017년)													편수 (%)		
	00	05	06	09	10	11	12	13	14	15	16	17				
①						1										1(2.78)
②												1				1(2.78)
③								1								1(2.78)
④												1				1(2.78)
⑤												1				1(2.78)
⑥						1						1				2(5.56)
⑦													1			1(2.78)
⑧				1												1(2.78)
⑨													1			1(2.78)
⑩													1		1	2(5.56)
⑪													1			1(2.78)
⑫														1	1	2(5.56)
⑬															1	1(2.78)
⑭															1	1(2.78)
⑮															1	11(30.56)
⑯															2	2(5.56)
⑰															1	1(2.78)
⑱															1	1(2.78)
⑲															1	1(2.78)
⑳															1	1(2.78)
㉑															1	1(2.78)
합계	1(2.71)	1(2.71)	1(2.71)	1(2.78)	2(5.4)	2(5.4)	1(2.78)	1(2.78)	1(2.78)	1(2.78)	1(2.78)	1(2.78)	1(2.78)	1(2.78)	1(2.78)	100(2736)

①민족연구, ②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③보건사회연구, ④사회과학연구, ⑤사회복지연구, ⑥상담학연구, ⑦소비자문제연구, ⑧아시아여성연구, ⑨통일정책연구, ⑩한국가족복지학, ⑪한국균형발전연구, ⑫한국모자보건학회지, ⑬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⑭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⑮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⑯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⑰한국웰니스학회지, ⑱한국지역사회복지학, ⑲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⑳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㉑Korean Journal of Medicine(구 대한내과학회지)

탈북여성 관련 분석대상 논문의 연구방법별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설문 조사가 24편(66.67%)으로 가장 많이 발표되었다. 그 다음으로 문헌연구(2차자료분석) 7편(19.44%), 실험연구 3편(8.33%), 구조화된 면접 조사 2편(5.56%)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참고]. 문헌연구는 2006년 1편부터 2011년 1편, 2012년 2편, 2015년 1편, 2016년 1편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적응실태조사, 지역사회복지 계획 조사자료, 병원 의무기록 등을 바탕으로 2차자료 분석이 이루어졌다. 실험연구는 총 3편으로 2013년 2편, 2016년 1편으로,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완화, 심리적 적응, 정서 및 사회적지지 강화 등을 위해 개입한 후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살펴보는 개입평가형 실험연구가 최근 들어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탈북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함으로써 근거기반실천의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며 앞으로 더 많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구조화된 임상면접 또는 설문지를 가지고 면접 조사를 하는 연구는 모두 2편으로 2000년 1편, 2010년 1편이 발표되었다.

표 2. 탈북여성 관련 분석대상 논문의 양적 연구방법별 연구동향

양적 연구방법	편수(%)
설문 조사	24(66.67)
구조화된 면접 조사	2(5.56)
실험연구	3(8.33)
문헌연구 (2차자료분석)	7(19.44)
합계	36(100)

탈북여성 관련 분석대상 논문의 주된 양적 자료분석 방법별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통계적 분석 방법이 34편(94.44%)에서 활용되었다. 그 외에는 기존의 자료를 바탕으로 문헌고찰을 한 연구 1편(2.78%), 기존의 자료를 바탕으로 제도 분석을 한 문헌고찰과 통계적 분석을 한 연구 1편(2.78%)이 있다.

표 3. 탈북여성 관련 분석대상 논문의 주된 양적 자료분석 방법별 연구동향

양적 자료분석 방법	편수(%)
문헌고찰	1 (2.78%)
내용분석	-
사례분석	-
통계적 분석	34 (94.44%)
문헌고찰 + 통계적 분석	1 (2.78%)
합계	36 (100)

2. 내용 분석

탈북여성 관련 분석대상 논문에서 많이 다루어진 주제들을 범주화하여 이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탈북여성 관련 분석대상 논문들의 내용 분석을 통해, 탈북여성 관련 연구에서 중점이 되는 특정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탈북여성 관련 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주제는 탈북여성의 정신건강 및 심리(17편, 47.22%)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탈북여성의 정신건강 및 심리는 성격특성에 대한 연구(5편, 13.89%), 스트레스와 우울감 관련 연구(5편, 13.89%),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에 대한 연구(3편, 8.33%), 정신건강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3편, 8.33%), 그리고 기타 심리적 요인 관련 연구(1, 2.78%)로 하위범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다루어진 주제는 탈북여성의 사회적응(5편, 13.89%), 탈북여성의 취업 및 진로(4편, 11.11%), 탈북여성의 건강(4편, 11.11%), 탈북여성의 성(3편, 8.33%), 탈북여성의 실태(3편, 8.33%)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탈북여성에 대한 양적 연구들의 주제 유형

주제	논문수 (%)	해당 논문
성격특성에 대한 연구	5(13.89)	[19-23]
스트레스와 우울감 관련 연구	5(13.89)	[24-28]
탈북여성의 정신건강 및 심리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에 대한 연구	3(8.33)	[29-31]
정신건강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3(8.33)	[32-34]
기타 심리적 요인 관련 연구	1(2.78)	[35]
총계	17(47.22)	

탈북여성의 사회적응	5(13.89)	[36-40]
탈북여성의 취업 및 진로	4(11.11)	[41-44]
탈북여성의 건강	4(11.11)	[45-48]
탈북여성의 성	3(8.33)	[49-51]
탈북여성의 실태	3(8.33)	[52-54]
총계	36(100)	

1) 탈북여성의 정신건강 및 심리

탈북여성의 정신건강 및 심리에 대한 연구는 총 17편(47.22%)으로, 크게 성격특성에 대한 연구, 스트레스와 우울감 관련 연구,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에 대한 연구, 정신건강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기타 심리적 요인 관련 연구로 나누어질 수 있다.

(1) 성격특성에 대한 연구

성격특성에 대한 연구들은 총 5편(13.89%)으로, MMPI 검사와 다요인인성검사Ⅱ를 통하여 탈북여성들의 성격특성과 방어기제,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19-23]들이 주를 이루었다. 선행연구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탈북여성의 MMPI-2 프로파일 유형에 따라 방어기제 사용에 차이가 있으며, 성격 특성과 방어기제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 그리고 복송 경험과 같은 탈북여성의 외상 경험보다는 성격문제가 심리 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컸으며[22], 국내 입국 초기 단계에 있는 탈북여성 중 절반 이상이 심리적으로 임상적 관심이 필요한 상태로 나타났다[20]. 탈북여성의 성격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하나원에서 탈북여성과 접촉이 가능한 특정 연구자 집단이 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하나원에서 지역으로 통합되는 전후의 과정에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다학제적인 접근과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5. 탈북여성의 성격특성 하위주제에 해당되는 연구

해당 논문	주요 내용
김희경[19]	하나원의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MMPI-2 프로파일 유형과 성격 특성에 따른 방어기제 양상을 살펴봄

김희경, 오수성[20]	하나원 탈북여성의 MMPI-2의 프로파일 하위유형을 살펴봄
김희경, 전진용[21]	하나원 탈북여성 집단과 탈북여성 정상 대조 집단을 비교하여 MMPI-2 진단적 유용성 검증
김희경, 최빛내[22]	탈북여성의 외상 경험과 성격병리가 하나원 탈북여성의 심리 증상에 미치는 영향 살펴봄
손영미, 강숙적, 박정열[23]	다요인인성검사 II를 활용하여 탈북여성의 성격적 특성 및 유형을 살펴봄
총계	5(13.89)

(2) 스트레스와 우울감 관련 연구

스트레스와 우울감 관련 연구들은 총 5편(13.89%)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24], 스트레스와 우울 및 자살생각과의 관계[25][26][28], 우울감이나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27]들을 규명하였다.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대상자인 탈북여성들의 높은 비율(48.5%)이 우울 증상[23]뿐만 아니라 과반수(45.5%) 정도가 최근 1년간 자살생각을 경험한 것[26]으로 나타나서, 탈북여성들의 우울감이나 심리적 어려움이 매우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생활 스트레스는 우울에 정적인 영향[25]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살생각의 위험요인[26]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조절효과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다수였다. 예를 들어, 탈북과정 외상경험 유무는 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25]를, 그리고 사회적 지지는 생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26]를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탈북여성의 차별지각과 우울 간의 관계를 문화적용 스트레스가 매개[28]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여성들의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는 탈북여성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탈북여성의 우울감, 양육, 죄책감 및 양육 스트레스는 긍정적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7].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해 탈북여성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처하였는데, 문제중심적 대처,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 정서완화적 대처, 소망적 대처 방식을 국내의 다른 여성 집단에 비해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탈북여성의 사회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문제중심적 대처방식, 사회적 지지추구, 정서완화적 대처방식에서 차이를 보였다[24].

표 6. 탈북여성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하위주제에 해당되는 연구

해당 논문	주요 내용
강차연[24]	탈북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를 살펴봄
김재엽, 류원정, 김지민[25]	탈북과정 외상경험 유무가 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 주는 영향을 살펴봄
김재엽, 최원호, 채지훈, 황현주[26]	사회적 지지가 생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 주는 영향을 살펴봄
김희경[27]	탈북여성의 우울감, 양육, 죄책감 및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살펴봄
이민지, 장혜인, 전진용[28]	문화적용 스트레스가 탈북여성의 차별지각과 우울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총계(%)	5(13.89)

(3)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에 대한 연구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에 대한 연구들은 총 3편(8.33%)으로, 탈북여성들을 대상으로 인간관계셀프프와 위 프로그램, PTSD 프로그램, 집단미술치료 등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들[29-31]이었다. 그러나 탈북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효과성을 검증하는 논문은 3편에 불과해, 프로그램 사전·사후 검사방법을 도입한 연구들이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표 7.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하위주제에 해당되는 연구

해당 논문	주요 내용
강숙적, 김은미, 손영미[29]	하나원의 탈북여성 두 집단에게 인간관계셀프프와 위 프로그램의 실시 전과 후, 그리고 1주일 후, 한 달 후 이들의 정서와 지각된 사회적지지, 의사소통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
김승현, 최빛내[30]	탈북여성 참여자들을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고, PTSD 프로그램 사전 사후에 북한이탈주민용 간이심리상태검사와 사건충격척도 비교
조하나, 최연실[31]	탈북여성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고, 해결중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그 효과성 검증
총계(%)	3(8.33)

(4) 정신건강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탈북여성의 정신건강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는 총 3편(8.33%)으로, 탈북여성의 정신건강을 예측하는 요인들

을 검증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방어기제, 결혼상태, 자녀 동반 입국 여부[32], 국내 입국 소요 기간, 복송경험 유무[32][33], 외상에의 노출, 가족과의 동거여부, 만성질환 보유 여부[34]가 탈북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탈북여성의 신체화, 행동화, 수동-공격, 동일시 등의 방어기제가 정신건강을 예측하는 주요 변수[32]였으며, 제 3국에 체류했던 기간은 탈북여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신체화, 분노, 정신증, 음주 문제 등의 심리적 증상에 영향[33]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외상에 노출되는 것은 우울 및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과의 거주는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4].

표 8. 탈북여성의 정신건강 영향요인 하위주제에 해당되는 연구

해당 논문	주요 내용
강희경[32]	하나원의 탈북여성 283명을 대상으로 방어기제와 정신건강의 관계 및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살펴봄
정유진, 최빛내[33]	하나원에 입소한 416명의 탈북여성들을 대상으로 탈북에서 입국까지의 기간 및 복송경험이 탈북여성의 심리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
조영아, 김연희[34]	정착 초기 북한이탈여성들을 대상으로 우울/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불안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공존 집단을 예측하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봄
총계(%)	3(8.33)

(5) 기타 심리적 요인 관련 연구

기타 심리적 요인 관련 연구로는 1편(2.78%)으로, 이인숙, 양윤미[35]의 탈북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외모관리 행동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탈북여성들은 메이크업과 의복관리 행동을 많이 하지만 운동, 섭식 행동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외모관심도, 외모관리 행동과 연령, 체중조절의도 및 성형관심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5].

표 9. 탈북여성의 기타 심리적 요인 하위주제에 해당되는 연구

해당 논문	주요 내용
이인숙, 양윤미[35]	탈북여성 201명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외모관리행동의 관련성 및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
총계(%)	1(2.78)

2) 탈북여성의 사회적응

탈북여성의 사회적응에 대한 연구는 총 5편(13.89%)으로, 탈북여성의 사회적응과 지역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사회적응에 관련된 연구들은 크게 탈북여성과 여성이주자 간의 멤버십이나 사회적응 과정을 비교한 연구[37][38][40]들, 탈북여성의 소비생활 적응[36], 그리고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적응 간의 관계[39]를 살펴본 연구들로 나누어질 수 있다. 특히, 여성이주자와 탈북여성 간의 멤버십이나 사회적응 과정을 비교한 연구[37][38][40]들은 2차자료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제2기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55], 2009년 충남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분석자료[56], 2003년 통일연구원 적응실태조사, 2004년 하나원 적응실태조사, 2005년 토일부 적응실태조사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과 탈북여성의 멤버십[37] 및 지역사회 성원군[40]을 비교 분석하거나, 탈북여성들이 경제적·사회적 차원에서의 적응과정[39]을 분석하였다. 반면에, 탈북여성의 소비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36]와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적응 간의 관계를 본 연구[39]에서는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2차자료분석이나 설문조사 방법 외에 다양한 연구방법이 활용된 탈북여성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표 10. 탈북여성의 사회적응 주제에 해당되는 연구

해당 논문	주요 내용
손상희, 정진화, 김정은, 박종옥[36]	서울 거주 탈북여성 278명의 소비생활적응 현황과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 개인적 특성, 경제적 특성들이 소비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송미영[37]	제2기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자료를 바탕으로 충청남도의 결혼이주여성 261명과 탈북여성 109명의 멤버십을 비교 분석함
이금순[38]	2003년 통일연구원 적응실태조사, 2004년 하나원 적응실태조사, 2005년 토일부 적응실태조사 등의 조사들을 활용하여 탈북여성들이 경제적·사회적 차원에서의 적응과정을 분석함

이순배[39]	경기도에 소재하는 탈북여성 178명의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적응간의 영향을 살펴봄
조화성[40]	제2기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자료를 바탕으로 충남지역의 결혼이주여성과 탈북여성의 성원권 현황 비교분석함
총계(%)	5(13.89)

3) 탈북여성의 취업 및 진로

탈북여성의 취업 및 진로에 대한 연구는 총 4편(11.11%)으로, 탈북여성의 진로결정 영향 요인 탐색[41], 진로장벽 척도 개발[42], 진로장벽 지각의 영향 요인 탐색[43], 정규교육과 직업훈련과 취업 간의 관계[44]를 살펴보는 연구들로 이루어져 있다. 탈북여성들의 진로결정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진로장벽요인으로는 '노동시장에 대한 준비부족', '노동시장의 제약과 낮은 기대'로 나타났으며,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노동시장 관련 변인의 영향력이 유의미하였다[41]. 또한, 탈북여성의 연령, 학력, 남한거주기간에 따라 진로장벽 지각수준이 달라지며[43], 탈북여성의 연령에 따라 남한에서의 정규교육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44]. 탈북여성의 취업 및 진로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특정 연구자 집단이 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더 다양한 연구자들이 이 분야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11. 탈북여성의 취업 및 진로 주제에 해당되는 연구

해당 논문	주요 내용
전연숙, 강혜영[41]	하나원에서 교육중인 탈북여성 106명과 경기도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교육 중인 남한여성 90명 간에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
전연숙, 강혜영[42]	탈북여성 1,108명을 대상으로 지각하는 진로장벽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진로장벽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함
전연숙, 강혜영[43]	탈북여성 546명을 대상으로 탈북여성의 진로장벽 지각수준이 연령별, 학력별, 남한 거주기간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
정진화, 손상희, 이주관[44]	탈북여성 278명을 대상으로 탈북여성에 대한 정규교육과 직업훈련이 이들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총계(%)	4(11.11)

4) 탈북여성의 건강

탈북여성의 건강에 대한 연구들은 총 4편으로, 건강검진이나 병원진단을 통한 탈북여성의 건강상태를 살

펴본 연구들[45][46]과 월경규칙성과 외상경험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47], 그리고 탈북여성의 건강관련 체력을 살펴본 연구[48]가 있다. 이 중에서, 몇몇의 연구[45][48]들은 남한 여성, 결혼이주여성들과 탈북여성 집단을 비교분석하였다. 탈북여성들은 B형간염 항원 양성률, 성매개감염인 클라미디아 양성률, 인유두종바이러스 유병률, 골밀도 이상소견이 우리나라 일반 여성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45]. 단일 3차 병원에 내원한 탈북여성 환자들은 백내장으로 인한 안과와 만성 C형 간염과 만성 B형 간염으로 인한 소화기내과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고 남한과 비교해서 만성 B형 간염, 만성 C형 간염, 결핵, 기생충 감염환자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46]. 탈북여성들은 성학대, 인신매매, 생명의 위협 등 인권이 심하게 침해되었으며, 불규칙 월경이 있는 대상자에게서 외상경험정도가 높게 나타났다[47]. 탈북여성의 체력에 관련된 연구[48]에서는 동일 연령대 한국 여성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탈북여성이 윗몸일으키기와 팔굽혀펴기 등 근지구력은 낮고,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의 유연성은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고, 신체적 건강 및 정신적 건강 모두에서 입국 3년 이상 탈북여성 집단이 6개월 미만 집단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다.

표 12. 탈북여성의 건강 주제에 해당되는 연구

해당 논문	주요 내용
문가을, 박보라, 이은실, 최규연, 이정재, 이임순, 이준환[45]	탈북여성 및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부인과 질환을 중심으로 한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한국 여성의 질병 상태와 비교함
안선영, 류성희, 김석배[46]	하나원을 통해 단일 3차 병원에 내원하는 탈북여성 환자들의 신체적 건강 상태에 초점을 두어 이들의 임상적 특성과 질환의 종류들을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조사함
김현경, 김희숙, 김석주[47]	하나원 지역적응교육센터의 탈북여성 131명을 대상으로 월경규칙성 문제와 북한 내의 탈북과정에서 겪은 외상경험의 실태 및 월경규칙성에 따른 외상경험의 차이를 조사함
서성혁, 신승환, 유병욱[48]	동일 연령대 남한여성 및 입국 6개월 미만(n=40)과 3년경과(n=40) 탈북여성 간의 신체조성, 심폐지구력, 근지구력, 유연성, 삶의 질을 집단 간 비교함
총계(%)	4(11.11)

5) 탈북여성의 성

탈북여성의 성에 대한 연구들은 총 3편(8.33%)으로, 탈북여성의 유흥업소 및 성매매 유입의 영향요인[49], 성지식 실태[51], 성기능 실태 및 영향요인[50]을 살펴 보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탈북여성의 성 지식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 행위에 대한 지식수준은 가장 높은 반면,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지식수준이 제일 낮았다[51]. 반면에, 성기능 장애의 비율은 남한 여성들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영선, 구혜완, 한인영[50]의 연구에서는 탈북여성 연구 참여자 중 86.4%가 성기능 장애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여성들이 유흥업소 및 성매매 유입되는 실태에 대해 연구한 김재엽, 김희진, 조영시[49]의 연구에서는 낮은 연령, 부채, 북한과 중국 등 제3국에서의 성폭력 피해경험, 북한과 중국 등 제3국에서의 성매매 경험, 그리고 이웃관계가 유흥업소 및 성매매 유입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으로 나타났고, 탈북여성의 자활효능감은 보호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탈북여성들은 성 지식의 부족, 성기능 장애, 유흥업소 및 성매매 유입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여성의 성에 대한 연구들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탈북여성들의 성 실태, 성 교육 및 성 건강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들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표 13. 탈북여성의 성 주제에 해당되는 연구

해당 논문	주요 내용
김재엽, 김희진, 조영시[49]	탈북여성이 남한에 입국하여 유흥업소와 성매매에 유입되는 데에 영향을 끼치는 영향변인, 즉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규명함
이영선, 구혜완, 한인영[50]	지역사회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한 북한이탈주민 여성 110명을 대상으로 성기능 실태를 알아보고, 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
한인영, 구현자, 오선경[51]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여성 318명을 대상으로 한 성지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탈북여성의 성 지식 수준을 파악하고, 북한에서의 성교육 여부와 국내 성교육 만족도를 살펴봄
총계(%)	3(8.33)

6) 탈북여성의 실태

탈북여성의 실태에 해당되는 연구들은 총 3편(8.33%)으로, 탈북여성의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요인[52], 그

리고 탈북여성의 정착실태[54] 및 생활실태[53]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 탈북여성의 실태에 대한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등의 2차 자료분석 방법을 활용한 연구[52][54]들이 주를 이루었다. 탈북여성의 생활실태와 경제활동실태를 파악한 연구[54]에 따르면, 탈북여성 5,652명 중에서 4,223명이 세대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탈북남성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도 낮고 비경제활동 인구와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탈북여성은 탈북남성에 비해 일용직 근로자 비율이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탈북여성들의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해 살펴본 김재엽, 류원정[52]의 연구에 따르면, 탈북여성은 지난 1년 간 정서학대(57.7%), 신체학대(49.0%), 방임(40.8%)의 아동학대 가해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기 학대피해와 아동학대 가해 간에 정적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 폭력피해는 성장기 학대피해와 아동학대 가해 간의 관계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검증되었다[52]. 체계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중국의 탈북여성들과 일대일 면접 조사를 실시한 문숙재, 김지희, 이명근[53]에 따르면, 중국의 탈북여성들의 주된 탈북 동기는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고 북한에 있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함이었으며, 중국으로의 탈북과 중국에서의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면서 심리적으로 갈등과 불안감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의 탈북여성들은 인신매매 등 기본적인 인권보장 침해의 문제가 있으며, 중국의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독립성 확보, 법적 호구 획득 문제, 한어 습득의 어려움, 남편 및 남편의 경제력에 대한 높은 의존도, 시댁가족과의 문제, 폐쇄적 생활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3]. 탈북여성의 실태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다룬 경제상황, 가정생활에 대한 실태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실태, 탈북자 지원제도의 현황, 남한 적응생활 실태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탈북여성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여성뿐만 아니라, 중국 및 제3국에 거주하는 재외 탈북여성의 실태에 대한 연구들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14. 탈북여성의 실태 주제에 해당하는 연구

해당 논문	주요 내용
김재엽, 류원정[52]	탈북여성의 성장기 학대피해와 아동학대 가해의 가정폭력 순환고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배우자 폭력의 가중효과를 검증함
문숙재, 김지희, 이명근[53]	중국 연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02명의 탈북여성들을 대상으로, 탈북동기 및 탈북실태, 중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활상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체계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함
전연숙[54]	2011년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1)를 바탕으로 탈북여성의 생활실태와 경제활동실태를 파악함
총계(%)	3(8.33)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탈북여성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탈북여성에 관해 지금까지 누적된 지식을 정리해 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연구방향과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부터 2017년 8월까지 탈북여성 관련 국내 양적논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및 탈북여성 관련 분야의 연구동향을 살펴본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출처 및 연도별, 연구방법 및 자료분석 방법별 그리고 연구의 내용 분석으로 연구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연구 분석틀에 따라, 한국학술정보원(KISS), 누리미디어(DBpia)에서 ‘탈북여성’, ‘새터민 여성’, ‘북한이탈 여성’의 키워드 검색으로 나온 논문 중에서 학술지에 게재된 실증적인 양적 연구논문 36편을 선정하여, 논문들의 일반적 특성 분석 및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 분석은 각 논문을 준거 틀에 따라 분류하고 빈도 및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내용 분석은 분석논문들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탈북여성 관련 주제들을 유사한 것들끼리 묶고 하위범주 설정한 다음, 범주들을 명명하여 결과를 정리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여성 관련 출처 및 연도별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 총 36편 논문 중에서 가장 많이 게재된 학술지는 “한국심리학회지: 여성”(11편, 30.56%)이었으며, 다음으로 상담학연구, 한국가족복지학, 한국모자보건학회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한국웰니스학회지 등에 게재되었다.

둘째, 연도별 연구동향을 살펴본 결과,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1편에 불과하였던 탈북여성 연구는 그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0년에는 8편(22.22%) 그리고 2013년에는 6편(16.67%)이 게재되었다.

셋째, 탈북여성 관련 분석대상 논문의 연구방법별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설문 조사가 24편(66.67%)으로 가장 많이 발표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문헌연구(2차자료분석) 7편(19.44%), 실험연구 3편(8.33%), 구조화된 면접 조사 2편(5.56%)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탈북여성 관련 분석대상 논문의 주된 양적 자료분석 방법별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통계적 분석방법(34편, 94.44%)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며, 그 외에는 기존의 자료를 바탕으로 문헌고찰을 한 연구 1편(2.78%), 기존의 자료를 바탕으로 제도 분석을 한 문헌고찰과 통계적 분석을 한 연구 1편(2.78%)이 있다.

다섯째, 탈북여성 관련 분석대상 논문들의 내용 분석을 통해, 탈북여성 관련 연구에서 중점이 되는 특정 주제를 범주화한 결과, 가장 많이 다루어진 주제는 탈북여성의 정신건강 및 심리(17편, 47.22%)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탈북여성의 정신건강 및 심리는 성격특성에 대한 연구(5편, 13.89%), 스트레스와 우울감 관련 연구(5편, 13.89%),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에 대한 연구(3편, 8.33%), 정신건강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3편, 8.33%), 그리고 기타 심리적 요인 관련 연구(1, 2.78%)로 하위범주화 되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다루어진 주제는 탈북여성의 사회적응(5편, 13.89%), 탈북여성의 취업 및 진로(4편, 11.11%), 탈북여성의 건강(4편, 11.11%), 탈북여성의 성(3편, 8.33%), 탈북여성의 실태(3편, 8.33%)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8년 4월과 6월 사이에 진행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인해 남북한 관계는 급변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가 탈북민에 의해 어떻게 해석되고 있으며, 사회통합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탈북민의 사회적응 뿐만 아니라 한국 전반의 복지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2002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탈북여성의 수는 탈북남성을 뛰어넘은 지 오래다. 그러므로 탈북여성

에 관한 다양한 주제의 다학제적 연구는 이미 활성화되어야 할 시기를 놓쳤다고 볼 수 있으며, 젠더중심적인 관점으로 그들의 복지 및 적응 전반에 관한 연구가 저급이라도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탈북여성을 위한 근거기반실천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혹은 개입평가에 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이기 때문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성폭력과 인권유린으로 인한 신체 및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예방하고, 이미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사후-추후평가를 실험군과 대조군을 활용하여 평가함으로써 기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방법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시기이다. 북한이 탈주민지원재단이 2010년 9월에 설립되어 전국 지역적응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하지 벌써 8년이 되어간다[57]. 그간 지역적응센터에서는 탈북민을 위한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해 왔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탈북여성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설문조사와 2차자료를 활용한 문헌연구 방법을 활용하고 있고,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완화, 심리적 적응, 정서 및 사회적지지 강화 등을 위해 개입하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살펴보는 실험연구는 3편에 불과하다. 이것은 다학제적 연구자들이 직접 탈북여성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직접 개입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자들을 만나는 일이 매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최적의 개입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직접 탈북여성의 능력이나 태도, 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입을 실행하고, 그 개입을 평가한 실증적 효과검증의 결과가 학술지 등에 발표되어 다학제적으로 검토되고 논의되어야만 한다. 일부의 분야에서 극히 제한된 시기에만 탈북여성을 접촉할 수 있다면, 탈북여성의 지속유지 가능한 적응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근거기반으로 개발하는 데에 크나큰 한계가 따를 것이다. 앞서 언급한 전국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10주년을 앞두고 지역별 특화된 개입으로 경험된 변화들에 대한 전국적 및 체계적 조사를 계획할 수 있겠다.

셋째, 탈북여성 관련 연구에 있어서 다양한 주제, 특

히 그들의 성공사례에 대한 연구들이 다학제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탈북여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연구주제는 대부분 탈북여성의 정신적 문제 및 그로 인한 적응상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탈북여성의 사회적응, 취업 및 진로 등 사회통합에 관련된 주제뿐만 아니라 탈북여성의 건강, 성 등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최근 들어 나타나고는 있지만, 연구의 양적인 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탈북여성들의 성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고 성기능상의 장애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그러한 문제에 대한 접근 및 개입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없어, 앞으로 성실태, 성 교육 및 성 건강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들이 선행연구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의 탈북여성뿐만 아니라, 중국 및 제3국에 거주하는 재외 탈북여성, 연령별, 출신지역별 그리고 입국기간별 탈북여성 등 연구대상을 다양화한 연구들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통합 및 사회제도에 관련 주제로서, 특정 사회복지제도 접근성,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용이성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 측면에서의 연구들과 탈북여성의 삶의 질 향상, 직업과 관련된 사회적 기술이나 지역사회 이용 기술 등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탈북여성에 관한 연구들은 탈북여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역량강화 관점, 강점 중심 관점, 그리고 생애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탈북여성 관련 연구들은 심리에 관련된 특정 학회지에 편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탈북여성에 관한 연구들이 심리에 중점을 두고 있고, 심리 관련 주제의 특정 학회지에 게재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결과이나, 사회복지 및 관련 타 학회지에도 탈북여성 관련 연구가 많이 게재됨으로써 탈북여성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연구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제어 또는 논문 명에서 ‘탈북여성’, ‘새터민 여성’, ‘북한이탈 여성’으로 제시된 연구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주제어 또는 논문명에서 탈북여성으로 제시 되지 않은 일부 연구물의 경우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탈북여성에 대한 국내 양적 연구들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탈북여성 관련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탈북여성 관련 연구의 중요성과 그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분석 대상인 탈북여성에 관한 양적 연구물은 * 표시함

- [1] <http://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
- [2] 박정란, 강동완, “탈북여성 결혼의 젠더구조와 문화적응 고찰: 정체성, 경제, 건강수준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35권, 제2호, pp.39-63, 2011.
- [3] 이영선, 구혜완, 한인영, “학술논문분석을 통해 본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특수성,” 통일문제연구, 제56권, pp.147-193, 2011.
- [4] 김태현, 노치영, “북한이탈 여성들의 삶 이야기: 해석학적 현상학을 통한 중국생활 체험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제41권, 제8호, pp.1-17, 2003.
- [5] 이새롬, 북한 이탈 여성의 남한 사회 조기 정착 방안, 민주 평화통일 자문회의 여성분과위원회 회의 자료, 2003.
- [6] 장혜경, 김영란, *이탈주민 가족의 가족 안정성 및 사회적응과 여성의 역할* 한국여성개발원, 2001.
- [7] 김엘리, 북한이탈여성주민 생활실태 조사결과 보고서, 북한이탈여성주민 생활실태 조사결과 발표와 지원 방안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병설 한국여성평화 연구원, 1999.
- [8] 신미녀,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상호인식 - 한국사회정착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 북한학연구, 제5권, 제2호, pp.119-143, 2009.
- [9] 박정란, 강동완, “탈북여성 결혼의 젠더구조와 문화적응 고찰: 정체성, 경제, 건강수준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35권, 제2호, pp.39-63, 2011.
- [10] 이기영, 성향숙, “탈북자 가족 구성원의 가족관계 인식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47권, 제11호, pp.243-271, 2001.
- [11] 박신순, *탈북여성의 가족관계 변화에 관한 연구: 북한-중국-한국에서의 가족생활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12] 박미석, 이종남, “탈북가족의 남한사회 적응 시 겪는 어려움과 그에 따른 대처방안,” 통일논총, 제17권, pp.3-73, 1999.
- [13] 안연진,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가족문화 특성에 관한 질적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14] 장혜경, 김영란, *이탈주민 가족의 가족 안정성 및 사회적응과 여성의 역할* 한국여성개발원, 2001.
- [15] 길태영, “죽음준비교육관련 사회복지학 분야의 연구동향 분석,” 사회복지연구, 제48권, 제2호, pp.267-301, 2017.
- [16] 이경현, 이지연, “국내 장애아 상담연구동향 분석: 2002-2012년 학술지 수록 연구를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제21권, 제3호, pp.31-52, 2013.
- [17] J. W. Creswell and C. Plano, *Designing and Conducting Mixed Methods Research*, SAGE Publishing, 2011.
- [18] A. Rubin and E. Babbie,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ork(4th Ed.)*, Belmont, CA: Wadsworth, 2001.
- *[19] 김희경, “탈북 여성의 MMPI-2 프로파일 유형과 성격 특성에 따른 방어기제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5권, 제3호, pp.311-329, 2010a.
- *[20] 김희경, 오수성, “탈북 여성의 MMPI-2 프로파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29권, 제1호, pp.1-20, 2010.
- *[21] 김희경, 전진용, “탈북 여성에서 MMPI-2의 진단적 유용성: 정신과 내원군과 정상 대조군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29권, 제2호, pp.335-353, 2010.
- *[22] 김희경, 최빛내, “탈북 여성의 외상 경험과 성격 병리가 심리 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3권, 제1호, pp.195-212, 2011.

- *[23] 손영미, 강숙정, 박정열, “여성 새터민의 성격유형에 따른 심리유형,”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제20권, 제1호, pp.19-44, 2014.
- *[24] 강차연, “재중 탈북여성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0권, 제1호, pp.61-80, 2005.
- *[25] 김재엽, 류원정, 김지민, “탈북여성의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우울에 관한 연구 - 외상경험의 조절효과-,” 한국가족복지학, 제46권, pp.85-107, 2014.
- *[26] 김재엽, 최권호, 채지훈, 황현주, “탈북여성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사회복지연구, 제44권, 제2호, pp.33-56, 2013.
- *[27] 김희경, “탈북 여성과 남한 여성의 우울감, 양육 죄책감 및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7권, 제4호, pp.535-558, 2012.
- *[28] 이민지, 장혜인, 전진용, “차별지각, 문화적응,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매개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21권, 제3호, pp.459-481, 2016.
- *[29] 강숙정, 김은미, 손영미, “하나원 인간관계셀프파워 프로그램이 여성탈북민의 정서, 사회적지지,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제11권, 제1호, pp.137-149, 2016.
- *[30] 김승현, 최빛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PTSD 프로그램 효과 검증: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8권, 제4호, pp.533-548, 2013.
- *[31] 조하나, 최연실, “북한이탈 기혼여성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해결중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가족상실로 인한 우울감 및 죄책감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제14권, 제2호, pp.1327-1345, 2013.
- *[32] 김희경, “탈북 여성의 방어기제와 정신건강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5권, 제1호, pp.155-173, 2010b.
- *[33] 정유진, 최빛내, “탈북에서 입국까지의 기간 및 북송경험이 탈북 여성의 심리상태에 미치는 영향: BPSI-NKR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22권, 제1호, pp.47-67, 2017.
- *[34] 조영아, 김연희, “초기 거주 북한이탈여성의 정신건강 고위험군 예측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5권, 제3호, pp.509-527, 2010.
- *[35] 이인숙, 양윤미, “북한이탈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외모관리행동과의 관련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12호, pp.273-284, 2015.
- *[36] 손상희, 정진화, 김정은, 박종욱,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소비생활적응 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45권, 제3호, pp.329-357, 2014.
- *[37] 송미영, “결혼이주여성과 북한이탈여성의 멤버십(Membership)에 관한 비교연구-충남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43권, pp.217-247, 2012.
- *[38] 이금순, “여성이주자의 사회적응과정 연구-북한이탈주민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제45권, 제1호, pp.191-234, 2006.
- *[39] 이순배, 김정훈,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인권과 한국 사회적응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균형발전연구, 제3권, 제2호, pp.21-43, 2012.
- *[40] 조화성, “특집: 변화하는 한국사회와 여성; 북한이탈 여성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 성원권의 시각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제45권, pp.91-113, 2011.
- *[41] 전연숙, 강혜영, “탈북여성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남한여성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4권, 제3호, pp.409-425, 2009.
- *[42] 전연숙, 강혜영, “탈북여성의 진로장벽척도 개발 및 구인타당도 검증,” 상담학연구, 제11권, 제4호, pp.1483-1500, 2010a.
- *[43] 전연숙, 강혜영, “탈북여성의 진로장벽 지각: 연령별, 학력별, 남한거주기간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5권, 제3호, pp.469-487, 2010b.
- *[44] 정진화, 손상희, 이주관,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교육훈련과 취업,” 통일정책연구, 제22권, 제1호, pp.267-296, 2013.

*[45] 문가을, 박보라, 이은실, 최규연, 이정재, 이임순, 이준환, “탈북여성 및 결혼이주여성 건강 실태 조사,” 한국모자보건학회지, 제19권, 제1호, pp.103-109, 2015.

*[46] 안선영, 류성혁, 김석배, “원저: 기타-일반내과 ; 단일 3차 의료기관에 내원한 탈북자 환자들의 임상적 특징,” Korean Journal of Medicine(구 대한내과학회지), 제89권, 제1호, pp.54-63, 2015.

*[47] 김현경, 김희숙, 김석주, “북한이탈 여성의 월경 규칙성에 따른 외상경험 차이,” 한국모자보건학회지, 제20권, 제1호, pp.43-53, 2016.

*[48] 서성혁, 신승환, 유병욱, “새터민 여성의 건강관련 체력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웰니스학회지, 제10권, 제1호, pp.311-321, 2015.

*[49] 김재엽, 김희진, 조영시, “탈북여성의 유흥업소 및 성매매 유입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사회과학연구, 제21권, 제1호, pp.76-113, 2013.

*[50] 이영선, 구혜완, 한인영,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성기능 실태 및 영향요인,”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제30권, 제2호, pp.55-69, 2013.

*[51] 한인영, 구현자, 오선경, “북한이탈여성의 성지식 실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5권, 제1호, pp.87-102, 2010.

*[52] 김재엽, 류원정, “탈북여성의 아동학대 피해 및 가해에 관한 연구 -배우자 폭력의 가중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제52권, pp.375-399, 2016.

*[53] 문숙재, 김지희, 이명근, “북한 여성들의 탈북동기와 생활실태 -중국 연변지역의 탈북 여성들을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제38권, 제5호, pp.137-152, 2000.

*[54] 진연숙,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실태 분석: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연구논총, 제11권, pp.5-32, 2012.

[55] 송미영, 류진석, 주소희, 2010년 제2기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충청남도, 충남여성정책개발

원, 2010.

[56] 김영주, 2009년도 충남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분석,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10.

[57]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업무매뉴얼 pp.6-7, 2018.

저 자 소개

이 순 민(Soon Min Lee)

정회원



- 2008년 12월 :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사회복지전공(Ph.D)
- 2009년 3월 ~ 현재 : 세종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 사회복지 윤리, 시각장애인 복지, 탈북 여성의 복지

심 우 찬(Woochan Shim)

정회원



- 2004년 10월 :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사회복지전공(Ph.D)
- 2008년 9월 ~ 현재 :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여성복지, 정신건강, 사회적 트라우마